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속보: 동부 및 걸프만 항만 파업 3일만에 끝났다. 항만 노무자들은 오늘 금요일 오전에 업무에 복귀했다. 임금 인상은 컸다. 경제 타격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.

현재 임금은 시간당 39달러인데 여기다 시간당 4달러를 인상해서 10% 약간 넘는 인상폭이다. 향후 6년간 적용된다. 6년간 기준으로 보면 임금은 시간당 24달러, 총 62% 인상됐다. 물론 양측이 동의한 임금 내역의 마지막 문구는 노조원들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.

복구일은 폐쇄된 날로부터 수일 걸릴 것으로 보인다. 뉴욕뉴저지항만과 버지니아 항만은 오늘 금요일 트럭 출입을 통제한다. 내일 토요일부터 트럭 출입이 허용된다.

[미국 경제]

- WSJ: 9월 미국 고용 가속화...예상 외 증가
- WSJ: 9월 안정적 고용 보고서, 11월 금리 빅컷 가능성 낮춰
- CNBC: 경제학자들 “정책이 미 중산층 임금 상승 억제한다”

[미국 대선]

- TheEconomist: 미국 대통령을 결정하게 될 주들
- Bloomberg: 오바마, 해리스를 위한 4주 선거 유세 시작

[항만 파업]

- WSJ: 항만 파업 종료, 미 항구 재개장
- Slate: 항만 파업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

[오일]

- CNBC: 미 유가 약 9% 상승, 중동 공급 문제 때문
- CNBC: 골드만삭스 “이란 오일 쇼크, 유가 20달러 더 급등할 수도”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- WSJ: 로보택시는 혼자 움직일 수 없다
- CNBC: Waymo, 로보택시에 현대 전기차 추가

[보고서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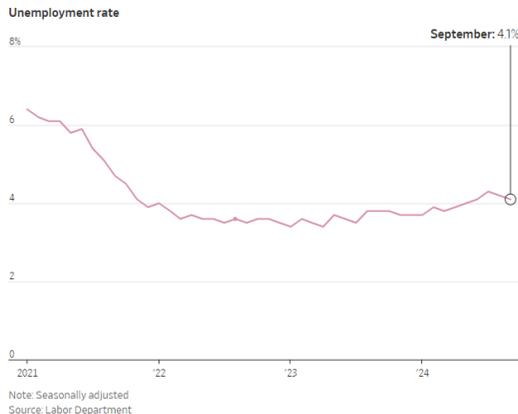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 정보

[미국 경제]

WSJ: U.S. Hiring Accelerated in September, Blowing Past Expectations
9월 미국 고용 가속화...예상 외 증가

- 9월 고용이 크게 증가하고 실업률이 4.1%로 하락했다. 금요일 미 노동부는 지난달 25만4천개의 일자리가 추가됐다고 발표했다.

-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면서 연준의 관심은 고용에 더 집중되어 있다. 연준은 다음 달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. 9월 고용 지표는 0.25%p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.
- 9월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술집, 레스토랑, 의료, 건설, 정부 부문에서 일자리가 늘어났다.



WSJ 기사

WSJ: Solid Jobs Report Likely Closes Door on Larger November Rate Cut

9월 안정적 고용 보고서, 11월 금리 빅컷 가능성 낮춰

- 금요일 발표된 9월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7월, 8월 고용이 생각만큼 부진하지 않았고, 특히 9월 고용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여름 약한 인플레이션 지표와 노동 시장 둔화 신호 때문에 금리 인하가 조금 늦었다고 생각한 연준 관리들도 있었다. 하지만 9월의 안정적인 고용 지표는 제롬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더 확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.
- 연준 관리들은 최근 금리 인하를 경제가 제약을 덜 느끼도록 금리를 “재조정”하는 과정으로 설명했다. 이러한 연준 전략과 안정적인 고용 지표를 고려하면 11월 금리 인하는 0.25%p 인하일 것으로 보인다.

WSJ 기사

CNBC: Middle-class wages aren't keeping up. Some economists say policy is suppressing pay growth

경제학자들 “정책이 미 중산층 임금 상승 억제한다”

- 경제정책연구소(Economic Policy Institute)에 따르면 1979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 생산성은 80.9% 증가했지만, 시간당 임금은 29.4%만 증가했다. 일부 경제학자들은 정책이 임금 상승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.

- 그 근거 중 하나는 미국의 높은 실업률이다. 샌프란시스코 연준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자연실업률(인플레를 발생시키지 않는 최저 실업률)은 4.5%와 5.5% 사이를 유지했다. 하지만 1979년 이후 실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높게 유지된 기간이 많았다.
- 실업률이 낮으면 임금이 오른다. 임금을 올리기 위한 직원의 가장 좋은 협상 수단은 임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직장을 옮기겠다고 말하는 것이다. 하지만 실업률이 높으면 이 위협은 힘을 잃는다.

CNBC 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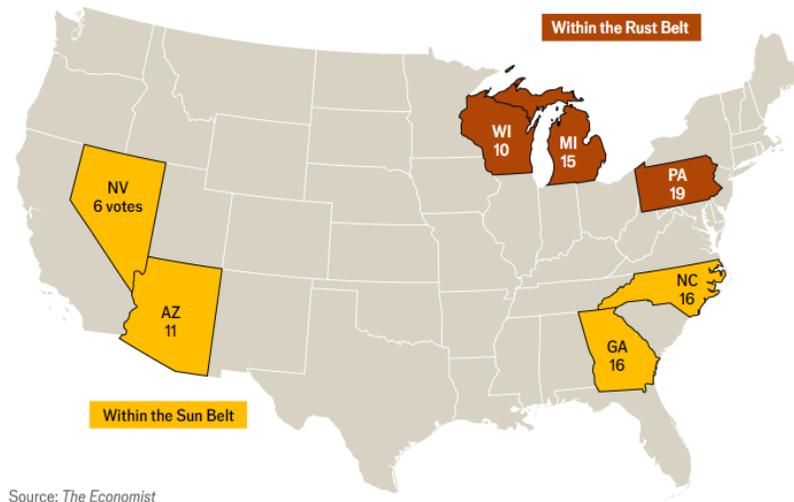
[미국 대선]

TheEconomist: The states that will decide America's next president 미국 대통령을 결정하게 될 주들

- 카밀라 해리스가 전국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보다 4%p 앞서고 있다. 하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의 승자를 결정하는 건 선거인단이다.
- 각 주마다 인구에 비례해 선거인단이 할당되며, 각 주에서 승리한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간다. 따라서 경쟁이 치열한 7개의 주가 매우 중요하다. 특히 선거인단이 19명으로 가장 많은 펜실베이니아가 티핑 포인트(tipping point)이다.
- 해리스 후보는 선거인단이 15명인 미시간을 포기하고 더 젊고 인종적으로 다양한 선벨트(Sun Belt)에서 승리해도 당선될 수 있다. 이런 인구 통계는 보통 민주당에게 유리하다.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애리조나, 조지아,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.
- 예측 모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에서 사퇴한 이후 민주당 승리 가능성이 20%에서 40%까지 올랐다. 위의 3개 주를 제외한 4개 경합 주에서 해리스가 승리할 가능성은 25%p 올랐다. 현재 선거는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.

On the road again

Key states in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2024, electoral-college votes



TheEconomist 기사

Bloomberg: Obama Launching Four-Week Campaign Blitz for Harris 오바마, 해리스를 위한 4주 선거 유세 시작

- 오바마 전 대통령이 10월 10일 피츠버그에서 민주당 해리스 후보를 위한 선거 유세를 시작해 주요 경합주에서 유세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.
- 해리스와 오바마는 20년 전 오바마가 일리노이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 처음 만났다. 당시 해리스는 오바마를 위해 유세 활동을 펼쳤다.
- 유세 전까지 오바마는 해리스를 재정적으로 지원했다. 오바마는 지난달 로스앤젤레스 모금 행사에서 해리스의 캠페인에 400만 달러를 기부했다. 또한 이번 선거 시즌 민주당을 위해 총 7천6백만 달러를 모금했다.

Bloomberg 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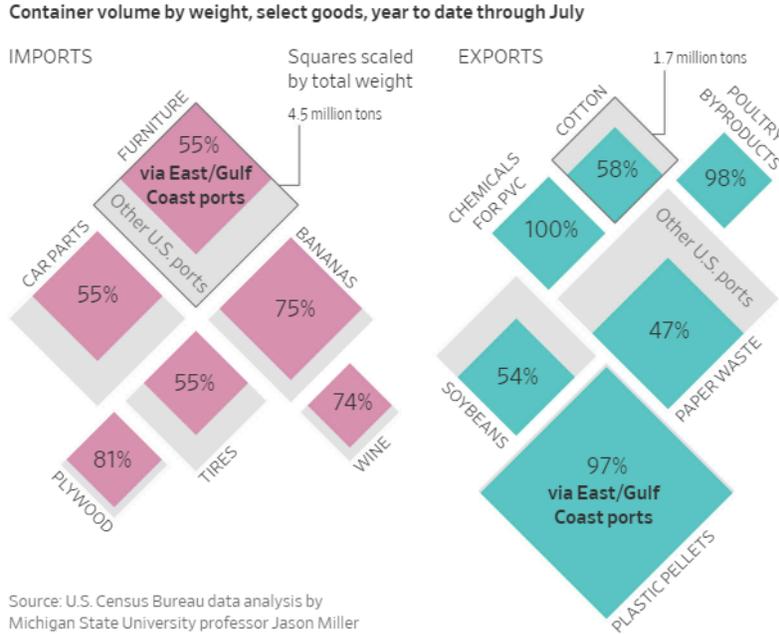
[항만 파업]

WSJ: U.S. Ports Reopen After Dockworkers End Strike 항만 파업 종료, 미 항구 재개장

- 미국 동부 및 걸프만 항만 파업이 3일 만에 끝났다. 많은 항구가 다시 문을 열고 컨테이너 정리를 시작했다. 항구 운영 재개에는 하루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.
- 양측은 6년 동안 임금을 62%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. 고용 측의 기존 50% 인상안보다는 높고 노조 측의 77% 인상 요구보다는 낮다. 파업은 노조 측

의 승리로 보인다. 고용 계약은 2025년 1월 15일까지 연장됐다. 부두 자동화를 포함한 다른 문제는 아직 협상 중이다.

- 이번 파업은 대통령 선거를 몇 주 앞두고 발생했다. 민주당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 트럼프 후보 모두 노조 측을 지지했었다. 또한 백악관에서도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.



WSJ 기사

Slate: Everyone Is Getting the Dockworkers Strike All Wrong 항만 파업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

- 화요일 자정, 약 5만 명의 항만 노동자들이 메인주에서 텍사스까지 동부 및 걸프만 항만 36개 항구에서 파업을 시작했었다. 다행히 현재 파업은 끝났다. 이 항만들은 미국의 수입과 국제 무역의 거의 절반을 처리하고 있다.
- 이 파업으로 하루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었다. 항만에서 물품을 운송하는 트럭 운전자들도 생계를 우려했다. 임박한 대통령 선거도 긴장감을 올렸었다.
- 그러나 이번 파업을 경제적, 정치적 영향에만 초점을 맞추는 건 잘못 됐다. 가장 중요한 논쟁은 임금과 자동화 문제다.
- 오늘날 항만 노동자들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블루칼라 노동자이다. ILA 조합원의 기본 시급은 39달러이며, 향후 6년간 점진적으로 77% 인상한 69달러까지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. 고용 측은 같은 기간 50% 인상을 제안했었다.
- 노조 측은 최근 몇 년간 해운사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린 반면, 노동자들은 높은 생활비와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.

- 또한 해운사는 부두 작업을 자동화하길 희망하지만, 노조 측은 자동화를 반대한다.

Slate 기사

[오일]

CNBC: U.S. crude oil has risen nearly 9% this week as traders fear Middle East supply disruption

미 유가 약 9% 상승, 중동 공급 문제 때문

- 미 유가는 이번 주 약 9%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.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의 원유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.
-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: 배럴당 74.07달러, 37센트(0.5%) 상승, 올해 3% 이상 상승
- 브렌트유: 배럴당 78.11달러, 49센트(0.63%) 상승, 올해 1% 이상 상승
- 천연가스: 천 입방 피트당 2.924달러, 1.55% 하락, 올해 약 18% 상승
- 골드만삭스 수석 석유 분석가 Daan Struyven은 지정학적 위기는 아직 유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. 지속적인 공급 차질이 없고 OPEC+의 증산 계획과 중국의 수요 약세 때문이다.

CNBC 기사

CNBC: Goldman Sachs says crude could spike by \$20 on Iran oil shock

골드만삭스 “이란 오일 쇼크, 유가 20달러 더 급등할 수도”

- 골드만삭스 글로벌 원자재 연구 공동 책임자 Daan Struyven은 이스라엘의 보복으로 이란의 원유 생산이 하루 100만 배럴 지속해서 감소하면, 내년 유가는 배럴당 20달러 더 급등할 것이라고 말했다.
- 다만, Struyven은 이란의 원유 생산에 차질이 생겨도 OPEC+이 증산을 통해 대응하면, 유가는 배럴당 10만 달러 미만으로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.
- 미국의 생산량 증가와 중국의 수요 부진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하락세였다. 하지만 3거래일 계속 유가가 상승하면서 이번 주부터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- 이란은 하루 약 40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는 세계 석유 시장의 핵심이다. 이란의 석유 생산 시설이 공격받을 경우 전 세계 공급량의 4%가 위협받는다. MST Marquee 수석 에너지 분석가 Saul Kavonic은 호르무즈 해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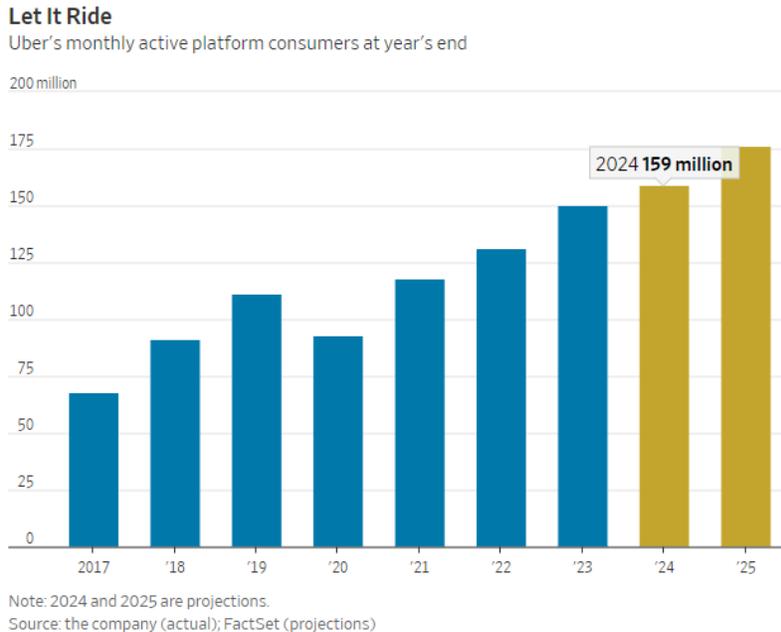
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. 이란 영해를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일일 석유 생산량의 20%가 통과하는 주요 통로이다.

CNBC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WSJ: Robotaxis Can't Be a Solo Act 로보택시는 혼자 움직일 수 없다

- 로보택시는 운전자는 필요 없지만 승객은 많이 필요하다. 우버는 Waymo, Cruise와 같은 로보택시 제공업체와 여러 계약을 체결했다. 로보택시 시장에서 우버가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꾸준한 수요를 입증해야 한다.
- 하지만 4월 테슬라가 자체 로보택시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많은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승리에 베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 테슬라 주가는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 행사를 앞두고 6개월 동안 43% 상승했다. 같은 기간 우버 주가는 5% 하락했다.
- 로보택시는 저렴하지 않다. 로보택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비용을 고려하면 Waymo의 로보택시는 15만~20만 달러로 추정된다. 운행 비용도 계속 든다. 이러한 막대한 초기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선 광범위한 라이더 네트워크(network of riders)가 필요하다. 모건 스탠리의 Brian Nowak은 우버가 미국 전체 차량 규모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최소 250억 달러가 든다고 추정했다.



WSJ 기사

CNBC: Waymo to add Hyundai EVs to robotaxi fleet under new multiyear deal

Waymo, 로보택시에 현대 전기차 추가

- Waymo가 로보택시에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 전기차를 추가하는 장기 전략적 파트너십에 합의했다. 금요일 Waymo의 6세대 자율주행 기술인 Waymo Driver와 수년에 걸쳐 상당한 규모로 통합될 것이라고 밝혔다.
- Waymo는 현재 미국의 유일한 상용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. 매주 10만 건 이상의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
- 아이오닉5 전기차는 조지아에 건설 중인 현대차 Metaplant America에서 생산될 예정이다. 아이오닉5 전기차의 도로 주행 테스트는 2025년 말에 시작될 예정이다.

CNBC 기사

[보고서]

'이제 눈치보기'... 이번주 8% 급등한 국제유가 약보합세 골드만삭스 "이란 석유시설 타격받으면 유가 20달러 오를 것"

중동 분쟁 격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했지만 최근 급등한 국제유가는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.

4일(현지시간)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국제표준시 04시대 기준으로 브렌트 유 선물은 전날보다 8센트(0.1%) 하락한 배럴당 77.54달러를 기록했다.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(WTI) 선물도 6센트(0.08%) 하락한 배럴당 73.65달러에 거래됐다.

국제유가는 중동지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공급 차질 우려가 번져 이번 주 들어 약 8% 급등했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